

보도일시

2026. 7. 1.(수)

배포

2026. 7. 1.(수)

동해해수청, 휴가철 맞아 묵호항 어항구 환경정비에 나선다

- 7월 10일까지 묵호항 소형선부두 환경정비 및 항만시설 사용실태 조사 -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정인)은 묵호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수협과 합동으로 묵호항 어항구*에 대한 환경정비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.

* 무역항 내 어항구(분구) 설정 고시(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-19호, 2015.3.3. 시행)

** 대상위치: 묵호항 어선물양장 및 주변 항만 부지

이번 점검은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그물·폐어구 등 해양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무단 방치 여부를 확인하고, 어구 적치 상태와 항만시설 사용실태점검으로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.

현장에서 확인되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도록 계도하고,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.

또한,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, 폐어구 및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어항구 내 방치된 폐어구와 쓰레기는 항만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”며 “수협 및 어업인과 협력하여 환경정비 문화를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동해지방해양수산청 묵호해양수산사무소	책임자	소 장	김수진 (033-520-6380)
		담당자	주무관	이도연 (033-520-6381)